

북

Books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

유쾌한 발견, 성석제의 이야기 박물지

대한민국 문인 중 알아주는 '이야기꾼'인 소설가 성석제의 작품은 짧은 글에서 더욱 빛난다. '쏘가리' 같은 산문집이나 '그 곳에는 어처구니들이 산다' 같은 짧은 소설을 모은 작품집을 읽다 보면 '킥킥'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스토리 자체도 흥미롭지만, 특히 '문체'가 갖는 재미가 그만이다.

성석제가 평생 '유쾌한 발견, 성석제의 이야기 박물지'은 이런 스타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산문집이다. 길어야 4~5페이지에 불과한 120여편의 글은 '천성적으로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저자가 풀어놓은 이야기' 보따리다.

직접 쓴 작가 소개에 따르면 성석제는 '호기심이 생의 활력을 낳는 원천임을 여전히 의심치 않고 있고 불순하고 잡스러우며 잡다하고 잡증인 데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잡학도사'로 불리고, 일부에서는 그를 '성 노가리'로 부른다.

별명에 걸맞게 글의 소재는 말 그대로 '종횡무진'. 잔디밭의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 막걸리 회악으로 쏘는 대폿집 대포 이야기, 철은 풀고 쟁은 까고 구라는 치는 입암꾼의 세계, 사회 곳곳에서 개발에 땀나게 뛰고 있을 '58년 개띠', 건망증, 미식축구, 추사 김정희를 거쳐 모차르트까지 그의 관심사는 끝이 없다.

저자의 말대로 '섬광처럼 터지는 웃음을 함께 알게 되는 일상의 비밀, 혼자만 알고 있기에 아까운 이야기, 보고 들으면 유쾌해지는 것'들을 담은 이야기는 재미와 상식, 웃음과 통찰을 주고 세상 이치와 진실을 깨닫게 해준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은 '오후의 국수 한 그릇'은 식욕도 자극한다. 박완서의 '이방'에 등장하는 호박김치, 혜진건의 '운수 좋은 날'의 설렁탕, 장



다양한 소재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은 성석제는 '삼국지'의 관우가 들고 다니는 연월도의 무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한다. 삽화의 한장면.



정일의 '햄버거에 대한 명성'의 소재인 햄버거, 배수이의 소설 '일요일 스카이키식당'의 스카이키 등.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별걸 다 궁금해 하고 조사해 놓았군'이라는 생각이 든다. 육설의 어원도 따져 보고, 궁동이·영덩이·방동이의 차이도 알아보고, '삼국지'의 관우가 들었던 청룡연월도의 무게도 계산해 보고, 현재 가장 독한 솔로 알려진 95도짜리 폴란드 산 스피리터스라에 대한 설명도 붙이고, 성삼문과 함께 '성씨 집안의 영예'라고 생각해온 성준향의 대단한 '입십'도 밝힌다.

또 정자와 난자의 미리수를 계산해 내가 태어날 확률을 '10의 1천1449의 제곱분의 1'로 계산한 외국 학자의 글을 인용하며 '나도 한때는 일등을 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껴 보라고 말한다.

그밖에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11년 연속 우승한 채나 선수들의 이야기는 커피에 관련된 이야기로 읽겨가고, 종국에는 생산자에게 적당한 대가가 돌아가는 '공정 무역'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

사실, 책에 등장하는 잡다한 상식들은 인터넷에 널려 있는 것들이고 이런 상식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둔 '실용서'들도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성석제는 같은 제료로 전혀 다른 음식을 내놓았다.

덤으로, 저자가 잡학과 암에 대한 숨모의 심정을 명백하게 담은 책으로 규정한 '위대한 거짓말' '쏘가리' '소풍' 등의 산문집과 '황근근은 이렇게 말했다' 등 그의 장편 소설들을 통해 '성석제 식 글맛'에 끝내보시라.

(하늘연못·1만2천원)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뉴스위크'는
한국 현대사
어떻게 기록했나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의 현대사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Korea, 넌 누구니?'(전 2권)는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행된 '뉴스위크'의 한국 관련 주요 기사를 정리해놓은 책이다.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는지를 알 수 있다.

1940~1970년대가 1권, 1980~1990년대가 2권으로 묶여있는 등 시대 별로 글을 분류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곳만을 발췌해서 읽어도 좋다. 한·미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뉴스위크 한국판·각 권 1만원>

조선 궁중무희의 슬픈 사랑

리진 1·2 신경숙 지음



다. 같은 인물임에도 이름이 '리진'과 '리심'으로 다른 것은 이 여성이 프랑스인이 쓴 글에 'Li Tsin'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기 때문. '리진'은 'Li Tsin'을 한국어 발음으로, '리심'은 중국어 발음으로 해석한데서 오는 차이다.

김탁환씨의 '리심'이 어머니와 이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신씨의 '리진'은 프랑스 공사 클랭과 인천항에서 프랑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는 것에서 시작한다. 큰 줄거리 외에는 다 다르다. 김씨에게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힘이 느껴진다면, 신씨에게는 그 만의 섬세하고도 차분한 문제를 드러낸다.

신씨는 리진을 복원하기 위해 틈만 나면 유럽행 비행기를 탔다. 리진을 역사소설 속 인물이 아닌 운전하게 살아있는 개인으로 복원해내기 위해서다. 신씨는 그래서 "(리진이) 사람을 속여 사랑스럽게 섞여 다시 잊혀지는 일 없이 현재형으로 존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권에서는 클랭과 리진 두 사람의 만남과 프랑스로 떠나기까지의 과정이, 2권에는 이들의 프랑스 생활과



조선으로 돌아온 뒤 리진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다. 리진의 정신적 지주인 명성왕후, 어릴 때부터 리진을 사모했던 궁중악사 강연, 프랑스에서 만나는 모파상이나 뱅상, 잔느 등이 이야기의 삶이 되고 있다.

(문화동네·각 권 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한국의 현대사를 어떻게 기록했을까.

'Korea, 넌 누구니?'(전 2권)

는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행된 '뉴스위크'의 한국 관련 주요 기사를 정리해놓은 책이다. 해방과 6·25 전쟁 등을 겪으면서 한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어떤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봤는지를 알 수 있다.

1940~1970년대가 1권, 1980~1990년대가 2권으로 묶여있는 등 시대 별로 글을 분류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곳만을 발췌해서 읽어도 좋다. 한·미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뉴스위크 한국판·각 권 1만원>

로뎀갤러리

가구의 格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진열상품 30%~최고70% ●특별기획상품행사



찾아오는 길 ↑기독병원
←백운동 남광주 →
삼성디지털
현대자동차
미래아동병원
GallerY RODEM

대표전화:(062)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 253-1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짧은 기업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제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 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신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



▲젊음이여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5·18(1980년)에서 6·10(1987년)까지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헤쳐나갔던 젊은이들의 기록. 광주 출신 황광우씨가 서울대 입학 후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젊음의 희생과 고난의 증언이다. <창비·1만1천원>

▲조선 지식인의 이틀다운 문장=박제기, 박지원, 정약용, 유동인, 이덕무 등 조선 선비들의 아름다운 글들을 골라 고전연구회 사암(俟巖)이 번역하고 살을 붙였다. 자연을 벗어나 풍류를 즐기던 조선 지식인들의 글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포럼·9천800원>

▲이나미 리츠코의 삼국지 깊이 읽기=국제일본문화센터의 '삼국지 전문가' 리츠코 교수가 삼국지의 변화 과정을 죽었다. 세월의 흐름, 민중의 기호 등에 따라 '삼국지'의 에피소드나 등장인물의 성격 등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분석한다. <작가정신·1만원>

▲수학교과서, 영화에 딛지 걸다=수학의 원리를 영화와 접목시켜 '부드럽게' 한 일종의 참고서. 저자 이재진씨는 영화 속에 숨어 있는 수학적 현상과 용어, 지식 등을 파헤쳤다. 단순한 정답 찾기가 아닌 논리적 추론과정을 제시해 문제 해결력을 높인다. <푸른숲·1만1천원>

▲세상이 달신의 드라마다=지난 2002년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쉬리의 여전사' 배우 김윤진의 에세이. 할리우드 진출을 결심한 뒤 미국 ABC 방송국의 드라마 '로스트'에 출연하기까지 거쳤던 험난한 과정과 기쁨, 앞으로의 포부 등이 담겨 있다.

<해냄·1만2천원>

▲남북한말 비교 사전=남·북·한국, 중국, 중앙아시아의 한글 3만 어휘를 가려 모은 사전으로 지난 2000년 출간된 '남북한말 사전'의 개정 증보판이다. '남북한 표준말 차이', '중국, 옛 소련 지역 한인들의 한글 문예 작품론' 등이 더해졌다. <한겨레출판·3만5천원>

▲차 한 잔에 담은 산야초 이야기=지리산에서 보낸 산야초 이야기의 저자 전문화씨의 두 번째 책. 차의 재료를 일과 전초, 꽃, 뿌리, 열매 등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차의 종류와 제다법을 설명한다. 저자의 산야초 사랑이 느껴진다. <웅진윙스·1만2천원>

▲대한민국 이야기=서울대 이영훈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해 2월 출간돼 한국 지성계에 논란을 일으켰던 책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주제로 진행했던 EBS 라디오 특강을 엮은 책. 탈민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사를 다뤘던 '…재인식'의 개념을 구어체로 풀어 이해를 돋는다.

<기파령·1만3천원>

▲미드 100배 즐기기 시즌1=번역가 문은실씨의 미국 드라마 '미드' 갈라잡이. 미드의 중독성은 '미드 폐인'이란 신조어로도 설명 가능할 정도. 저자는 범죄, 액션, 영웅, 가족 등 8개 주제로 나뉜 24개의 드라마를 감칠맛 나게 설명한다. 부록으로 읽어집이 제공된다. <행간·1만2천원>